

축소된 일상·맑아진 대기...불편 속에 깨달은 공존의 삶

COVID-19,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다

매연·스모그 등 대기 오염물질 급격히 줄어 '성장'이라는 이름의 환경 파괴 모두가 반성 코로나의 역설... '뉴노멀'로 새 패러다임 찾자

피부가 되어버린 마스크,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하는 발열체크, 습관이 되어버린 손씻기...

올해 벅두 중국 우한에서 '신종폐렴'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를 접할 때만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상이 한해가 저물도록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우리는 축소된 일상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평소에 즐기던 여가활동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도 예전보다 조심하게 되고, 일자리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표적인 예로 헬스장이나,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마스크를 꼭 쓰고, 음식점이나 마트를 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자리는 총인원의 3분의 1 필수 인원만 직접 출근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재택근무를 하는 일도 있었고, 많은 업무가 화상 회의나, 전화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학교가 상당기간 문을 닫았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코로나-19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새로운 질병을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잊고 살았거나, 무관심했던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가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필요한 인원 외 사람들이 출근을 덜 함으로써 매연과 스모그 등 대기 오염 원인물질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공기의 질은 개선되었다. 봄이나 가을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중국이 공장가동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다.

소비의 위축은 경제의 위축을 가져왔지만 생산활동의 축소와 함께 생태계가 조금씩 복원되고 있다. 자연 경관을 훼손시키는 개발행위도 줄게 되었고 도시인근의 하천도 맑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 양상을 띠면서 세계의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소비자와 주부들도 21세기 산업고도화 시대에 인류가 얼마나 지구를 축사하고 자원을 착취해왔는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반갑다 맑은 하늘

우리에게 이렇게 맑은 하늘이 있었던가.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축소되면서 대기질을 비롯한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0월초 광주 사직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무등산 풍경.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칭송되어온 생활 양식이었다. 만약 코로나시대를 다행히 극복해 낸다면 하더라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엔 코로나 이전의 모든 가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에 세계는 동의하고 있다. 이른바 '뉴 노멀'이 경제와 정치, 문화와 교육에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코로나시대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 언택트(Un-Tact)문화와 온택트(On-Tact)문화의 정착이 그것이다. 과거 오프라인 공연으로만 진행이 되었던 많은 문화행사들도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되었다. 실시간 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반응 소통을 이끌어 내 멀리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아도 마치 간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언택트 문화이면서 온택트인 문화현상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완화에 따라 조심스럽게 오프라인 행사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방역 청소 관련업종들도 주목받는 업종이 되었다. 무엇보다 전 사회 구성원의 위생관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높아졌다. 백신개발 소식이 전해지는 지금이지만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의 개발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자연과 공존할 줄 모르는 '환경괴물' 인류는 어쩌면 코로나시대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세훈 학생기자

"200km 밖 히말라야 설산들 선명하게 보여"

지난 1월 23일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에 봉쇄조치를 내린 이후 중국의 대기중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2월에 30% 감소했다.

지난 3월 25일 인도정부가 12억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3주간 국가봉쇄령을 내린 후 인도 북부의 잘라다르 주민들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200km 밖의 히말라야 다울라드르산맥을 맨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재택근무, 개학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한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46% 줄었다.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고 강수량도 예년보다 많은 탓도 있었지만 2월 감소 폭이 26%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분석에 이의가 없다.

런던, 뉴욕, 파리, 우한 등 주요 도시에

선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이 사라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통량은 60% 감소했고, 자동차 사고는 절반으로 줄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민들이 3월에 움직인 거리는 평소의 6%밖에 되지 않았다.

하늘도 조용해졌다. 영국의 항공정보제공업체 OAG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정기 항공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줄었다. 유럽에선 감소폭이 90%나 된다. 전 세계 항공사의 하루 운항 편수는 2월 약 20만편에서 3월말 6만여편으로 감소했다.

국내선보다 국제선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 한국에서도 국제선 탑승자 수는 95% 급감했다. 국제 항공사 여객기 10대 중 9대는 지상에 묶여 있다. 항공편은 전 세계 운항량 2%를 차지한다. 항공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지난 20년 사이 배출량

이 두배로 늘었는데.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이를 20년 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런 변화로 기후변화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마다 7.6%씩 줄여야 한다. 정책의 급전환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눈여겨볼 것은 이 와중에 대기오염의 주범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준다. 파티흐 비를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는 청정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견민 학생기자

새로운 고민...일회용품 쓰레기 폭증

애써 추진한 일회용품 감소 정책 '와르르' 위생과 환경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등 생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배달 음식 결제액이 올해 작년 동기 대비 75%가 증가한 10조 3300억 원을 기록했다.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대부분은 일회용품이다. 택배 상자 소비량은 19.8%가 증가하여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20% 이상 증가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도 일회용품 사용을 늘렸다.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

게 하여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던 생활 쓰레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순식간에 다시 늘어난 셈이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배달 전문 분식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는 한번 주문 시에 일회용 포장 용기 4개, 일회용 식기류 2세트, 최종 포장박스 1개가 사용되어 최소 9개의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했다. 하루 평균 50개의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니 적어도 하루에 450점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셈이다. 신씨도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일회용 식기류를 요업소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

거나 테이프로 대처하는 등 노력을 해보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우리의 집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 지금 지구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산이 되고 섬을 이루는 곳도 있다.

언제 지구가 쓰레기에 잠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는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줄이는 등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홍승현 학생기자



국내유일 AI특성화대학

- 전교생 AI융합교육
- AI 융합인재양성
- AI 캠퍼스 구축
- AI 교육센터개소

카카오톡
@호남대학교입학상담
채널 추가하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120 대학본부



**AI시대
넥스트
챔피언!**